**I. 이달의 소식**

1. 정기모임 안내 1쪽
2. 지부소식(기도제목, 강연내역) 32쪽

II. 특집

1. 교과서와 기원문제(6) 2쪽
2. 소감문(심화과정) 26쪽

III. 내용

1. 정재훈 칼럼(33) 창세기로 시작하는 역사1 5쪽
2. 빙하기 탐구(8) Frozen in Time(7) -강기태역 10쪽
3. 창조기사(56) 창조의 절정 18쪽
4. 성경여행(101)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다 22쪽

인사말



2018년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인생의 환갑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나 자신이 장로 직분을 사임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하고 올해 청도 풍각제일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서 2년차를 보내고 있다.

40년간 미디안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관조한 모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0년간, 깊은 사색과 더불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나 자신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 청도에서 자연을 벗 삼아 농사를 배우며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나 자신을 진솔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와 “창조과학” 전문강사가 되어 강의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신학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사랑이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며 창조가 진리이며 진정한 과학임을 말하련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부지부장 김완영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2018년 2월 22일 목요일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2월 정기모임은 경북대학교 임진규교수님의 “DNA는 알고 있다”는 제목의 강의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부터 간식)**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전시관

주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64(4층)

문의: ☎ 070-4095-6420, 010-2051-0922



공상과학 소설 RNA의 세계

노휘성 글(과학교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왜 RNA의 우연한 출현이 화학진화의 긴 시나리오 중 한 부분으로 중요한 것일까? RNA는 구조적으로 DNA와 비슷하며, 유전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염기부호를 가진다. 또한, RNA는 자신과 닮은 RNA를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며, 이러한 복제과정이 다른 촉매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RNA의 자기복제력과 효소 기능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맨 처음의 RNA만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RNA를 형성하는 재료들만 충분히 존재했다면, 돌연변이를 통해 다양한 RNA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단백질들에 대한 유전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RNA의 돌연변이가 무수히 반복되다가 DNA를 결합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인 DNA 중합효소에 대한 정보까지 갖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결국 RNA 세계라는 것은 고도로 복잡한 정보 저장체계인 DNA가 어떻게 저절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이 난감한 문제를 풀어가는 돌과구로서 선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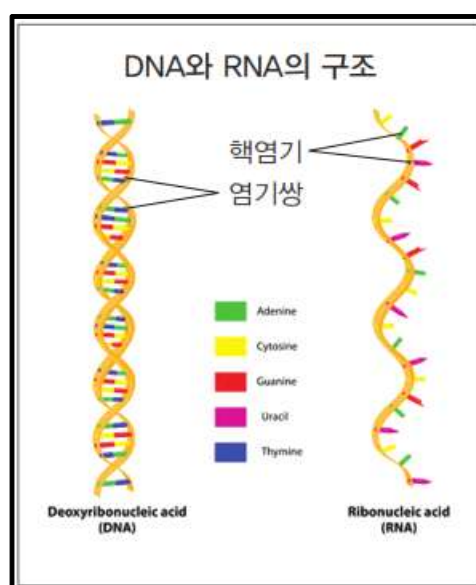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RNA의 세계를 거쳐 가는 화학진화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10학년 과학교과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아데닌과 시토신과 같은 염기와 리보스, 그리고 인산기가 결합하여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데, 이것에 열을 가하면 스스로 모여서 RNA 단일 가닥 사슬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중략> 따라서 원시 지구에서 형성된 RNA가 필요에 따라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DNA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

정말 자기복제력이 있는 RNA가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었을까? 대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일단, 자연에서 RNA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저절로 합성되지 않는다. 다음, 그런 재료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그 단순한 유기물들 중 오직 D-형(오른손형) 오탄당만 선별하여 50개 이상 연결시킨 뉴클레오타이드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험실에서조차 RNA를 합성해보려고 시도했을 때, 용액-건조-건조-용액-건조를 교체하며, 알칼리-산성-산성-알칼리성 순으로 맞추어야 하고, 온도는 실온 100도 - (50-160도) - 90도 등으로 조정하며, 공기가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자연계에는 매우 희박한 10종의 유기물과 무기물이 화학반응의 각 단계마다 정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한다.[2] 우주 그 어디에도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과 재료들을 각 단계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 한마디로, 그것은 저절로 이루지는 과정이 아니다.



더군다나, 진화론자들의 염원대로 RNA가 DNA의 세계가 오도록 그 발판이 될 수 있으려면, RNA가 유전 정보를 가질 뿐 아니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RNA는 단 두 개의 아미노산조차 연결시키는 능력이 없다. 무엇을 말하는가? 설사 누군가 RNA 한 트럭을 아미노산이 충분히 많은 연못에 부어 넣었다 해도 그 연못 안에서는 그 어떤 단백질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억 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연못에서 DNA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이다.

마치 그러한 일이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단순한 유기물에서 단백질, RNA, DNA로의 진화 스토리를 엮어가는 화학진화는 단지 상상을 통한 소설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NA가 필요하고, DNA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합 효소인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RNA 없이는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을 만들도록 제공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각각으로서는 무능하며, 동시에 있어야만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누가 이 복잡한 생체분자들을 동시에 존재하게 했단 말인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만물의 조성자’이시다 (렘 10:16).

[1] 안태인 외 11인(2011),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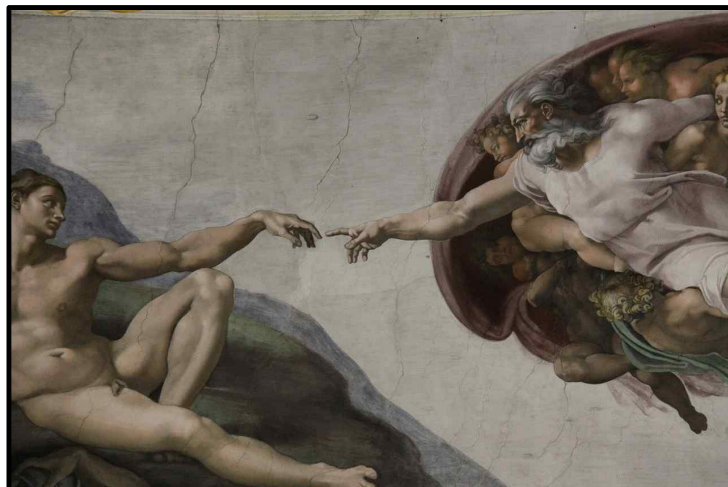
[2] *생물의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김기환,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2008), 125 [참조](#)

33. 창세기로 시작하는 역사 1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33	창세기로 시작하는 역사 I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정재훈	



역사책의 시작 부분은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기술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로 시작하는 역사보다는 작고 따스한 연못에서 시작하는 상상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작고 따스한 연못에서 우연히 발생하거나 초신성의 폭발로 발생하는 역사보다 생명의 기원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피조계는 우연히 발생한 생물의 점진적인 진화를 증거한다기 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나타내고 있다.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곱째 날의 ‘안식’을 창조활동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기간은 오늘날과 같은 일주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시간과 우주라는 공간, 지구라는 물질, 빛을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물을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다. 물은 창조의 첫날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물의 이동으로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씨의 형태가 아니라 풀과 채소와 과목의 형태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명백히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연환경과 생물환경이 모두 만들어진 다음, 마지막으로 생물을 창조하신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방식으로 사람, 남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선조들은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되었다. 선조들은 에덴동산에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과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규칙을 부여받게 된다. (신화적인 해석들은 생략하고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다. 그 결과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사람에게 죽음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음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등의 형벌이 주어진다. 거꾸로 보면, 불순종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죽음과 소산을 먹기 위한 수고, 출산의 큰 고통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조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이때부터 먹기 좋은 식물이 쉽게 나지 않았고, 창조기간에는 등장하지 않았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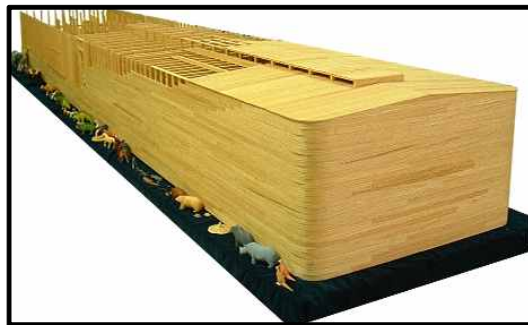
인류는 빠르게 번성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이름을 가인, 아벨, 셋, 단 세 명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기록으로 보아 다른 자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인의 부인은 어디서 왔을까?’라며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가인의 부인은 아담의 자녀 중 한명이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가족혼의 풍습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번성과 더불어 인간의 문화도 빠르게 발전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에 의하면 단 여덟 세대 만에 악기를 만들었고,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였다. 창세기로 알 수 있는 선조들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닌 성인으로 창조된 최초의 사람, 아담은 유창한 언어를 구사했고, 동물을 구분하여 이름을 붙일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선조들의 모습은 진화론적 인류학자들의 주장처럼 돌도끼를 든 털 빠진 유인원의 모습이 아니다. 진화론적 인류학에서는 도구의 발달이

나 주거 형태의 발달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해석하지만, 여기에 오랜 시간을 부여하는 근거는 그저 오랜 시간동안 진화되었을 것이라는 진화론적 신념뿐이다. 왜냐하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석기와 철기가 한 지역에서 뚜렷한 시대적 구분을 가지고 발견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472] 발견된 도구들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정보나 재료의 차이에 불과하다.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선조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 최초의 선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으며 다음 세대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일부다처의 가족형태가 발생했으며 어떤 선조는 살인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기도 했다. 권력이 탄생하면서 수평적이었던 문화가 수직적으로 변해갔다. 고작 몇 세대 만에 인류의 죄악이 도를 넘어섰고, 급기야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10대 선조 ‘노아’를 통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노아에게 직육면체 모양의 큰 배,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길이 137 m, 폭 23 m, 높이 14 m 안팎의 3층으로 이루어진 방주를 만들었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의 대표와 함께 방주에 승선하게 된다.



〈방주 모형〉

방주의 제작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대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았을 것이고, 아마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을 동원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에 쏟아 부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므두셀라가 방주의 제작 과정에서 살아있었고, 제작 과정에 적극 참여했을 것으로 본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대홍수가 있기 5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인 므두셀라보다 먼저 죽었고, 노아의 할아버지인 므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대로, 대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해에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현존하는 모든 종의 동물이 탈 수 없었다며 방주 사건의 사실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다. 동물들은 ‘종’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분류 단위인 ‘종류’대

로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종류의 동물이 들어갈 필요 없이 코로 숨쉬는 종류의 ‘대표’ 몇 쌍만 들어가면 된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동물들은 그저 방주로 나아갔다. 철새들은 상상을 초월한 거리를 매년 이동할 수 있고, 환경의 신호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마스크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방주를 만들라 지시하신 하나님이 동물들을 필요한 만큼 이동시키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승선하기 전후에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았겠냐고 비아냥거리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당시 사람과 동물들은 채식을 했었다. 육식은 대홍수 이후에 허락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육식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빨이나 발톱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날카로운 이빨은 육식을 하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식물이나 과일을 자르고 찢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팬더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으면서도 채식만 하고, 박쥐 중에는 초식만 하는 박쥐가 있는데 육식을 하는 박쥐와 구조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들이 대홍수 후에 육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그 기관을 만드는 정보가 DNA에 기록되어 있다면 ‘육식’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육식동물이 초식의 환경에서 초식동물로 변화된 사례나 초식만 하는 사자, 초식의 시스템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식동물 등의 사례는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펭귄은 방주에 타기 위해 다른 동물들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을까? 일단 모른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염려처럼 많은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홍수 이전의 대륙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지구 전체의 기온은 거의 비슷했다고 보면 방주 주변에서나 방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나 비슷한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동물은 없었을 것이다. 설사 특정 동물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한들, 이런 사실이 창세기 대홍수사건의 사실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시대를 살아본 양 당시 기술로는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주는 일반적인 배와는 달리 돛이나 노, 엔진같은 어떤 추진체도 필요가 없고 그저 안전하게 떠있기만 하면 된다. 당시에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홍수 이전의 고대인들을 미개하게 보는 진화론적 사회학에 영향을 받은 해석이다. 창세기에는 대홍수 이전에 이미 철기를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천 년 가까운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이 현대인들에 비해 개인에게 훨씬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본다. 만약 한 분야를 천 년 동안 연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방주의 제작에 사용된 ‘역청(pitch)’은 석탄이나 석유에서 추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가 없었던 대홍수 전에는 역청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성경의 기록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역청은 반드시 화석연료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송진이나 다른 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 물론 노아 시대에 송진으로 역청을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다. 방주의 제작에 사용된 ‘고페르’도 개역한글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되어 방주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론자의 공격을 받았으나, 개역개정성경에는 히브리어 그대로 ‘고페르’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고페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런데 그 발음이 히브리어로 역청과 비슷하여 나무의 이름이 아니라 역청을 이용한 제작 방식이라는 해석이 있다.

창세기 대홍수사건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이 1년간 살 수 있었는지, 단 8명의 사람이 어떻게 그것들을 돌볼 수 있었는지, 30 m가 넘는 공룡들은 어떻게 14 m 높이의 배에 탈 수 있었는지, 그 많은 동물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대홍수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어떤 자료라도,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양질의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단, 창세기 대홍수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만나더라도 의심이 앞서게 되고, 그런 의심들은 건전하게 진리로 접근하게 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키우게 될 테니 말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참조](#)

Frozen in Time

Chapter 7 The Genesis Flood caused the Ice Age (창세기 대홍수에 의한 빙하기)

출처: <https://answersingenesis.org/environmental-science/ice-age/genesis-flood-caused-the-ice-age/>

빙하 시대에 필요한 두 성분, 곧 낮은 기온과 엄청난 양의 눈은 창세기 홍수 직후에 극적으로 성취되었다.

털북숭이 매머드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빙하기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털북숭이 매머드가 빙하기의 거주자이기 때문이다(부록 4 참조). 나는 먼저 빙하기의 전개에 대한 성경적 이론을 탐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털북숭이 매머드를 둘러싼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얼음이 한때 캐나다의 대부분과 미국 북부와 중부의 일부를 덮고 있다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증거는 북유럽, 아시아 북서부, 유라시아의 많은 산악 지대, 남반구와 열대 지방의 높은 산악 지대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진실은, David Alt⁽¹⁾가 간결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자들은 여전히 빙하기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론은 풍부하지만, 빙하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일과정설은 빙하기 혹은 빙하기와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다. 현재 빙상은 생겨나지 않고 녹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빙하가 생겨났는지 실제로 관찰할 방법이 없다. 털북숭이 매머드가 멸종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다. 큰 호수들은 지구의 사막을 채우지 못한다. 빙하기 때 동물과 식물 분포는 오늘날 관찰된 어떤 패턴과도 달랐다. 그리고 우리는 빙하기가 끝날 때 일어났던 많은 종류의 대량 멸종을 관찰하지 못했다.

진화론자들이 빙하기의 기원이나 거대한 포유류의 대량 멸종을 설명 할 수 있는 현재의 과정을 발견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2세기 이상 동안 모아진 데이터에서 빙하기의 원인을 찾지 않고, 동일과정설적인 가정들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동일과정설에 대한 가정이 거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나의 신념이자 많은 다른 사람들의 확신이다. 나는 주류 과학자들의 동일

정설적인 가정과 대격변에 대한 적대감이 털복숭이 매머드뿐만 아니라 빙하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멀게 했다고 믿는다. Guthrie<2>는 빙하기와 관련된 조화되지 않는 연관성과 뒤따른 멸종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의 경력 초기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60년대 초반에 젊은 고생물학자의 눈을 통해 멸종 문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는 데에는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처음으로 얻었다. 사실상, 과거의 많은 부분이 현대와 유사성이 없을 수도 있다.

Larry Marshall<3>은 빙하기 멸종에 관한 책에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많은 저자들은 오래된 공리, 즉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Guthrie (13장)는 현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이 홍적세를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를 더 이상 표준으로 간주 할 수 없다.

그들은 동일과정설을 가까운 과거에, 즉 빙하기와 털복숭이 매머드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많은 신비를 푸는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 동일과정설의 교리이다. 격변설은 그 두 가지 신비에 대해 논리적이고 결함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나는 우리가 거절한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는다. 창세기 1-11 장에서 초기 지구 역사에 대해 솔직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과 다른 많은 전통들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묘사한다. 1700년대와 180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었던 전 지구적 대홍수는 결코 틀린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1800년대 중반에서 후반의 과학자들은 그 대신에 단순히 동일과정설을 가정하기로 결정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결과 중 하나는 기후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그림 7.1). 빙하기와 털복숭이 매머드의 신비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이 과도기적 기후 내에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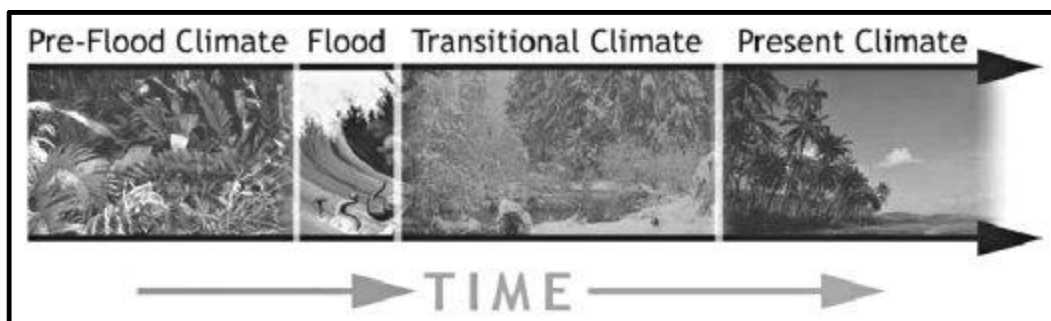


그림 7.1. 대홍수와 관련된 빙하기의 시간틀 (Illustration by Daniel Lewis of AiG.)

The first requirement – cooler summers (첫 번째 필요조건 - 시원한 여름)

성경의 창세기 홍수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격변 동안과 그 직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형성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성경은 대홍수 물의 대부분이 “큰 깊음의 샘”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깊음 혹은 큰 깊음은 바다를 의미한다<4>. 큰 깊음의 샘이 폭발했다는 것은 바다가 일어나 땅을 덮었음을 의미한다. 즉 해양 또는 지하수가 땅으로 분출했다는 것이다<5>.

대홍수 초기에 기념비적인 지질학 및 수문학적인 활동이 일어났다. 거대한 지진이 지각에 커다란 균열 혹은 틈새를 야기했을 것이며, 폭발적으로 지하수를 방출하고 화산 활동을 촉발시켰다. 추론을 통해 대홍수 이전의 산들은 상당히 낮았으며, 산이 10,000 피트 (3000m) 이상이었던더라도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강렬한 흐름은 기존의 산을 침식했을 것이다. 비가 내리기 전에 큰 깊음의 샘이 언급되었으므로 그것의 대부분의 강우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우는 대홍수 때 물에 기여한 두 번째 요인이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대홍수 물은 150일 동안 증가하여 땅을 덮었으며, 가장 빠른 상승은 처음 40일 동안 일어났고 다음에 110일 동안은 느리게 상승하거나 “우세한” 것이었다(그림 7.2). (일부 창조론자들은 대홍수가 40일 동안 절정에 달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림 7.2의 대체 점선) 그리고 대홍수는 이후 221 일간 대륙에서 물러나고 시편 104:6-9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다가 내려가고 산들이 올라갔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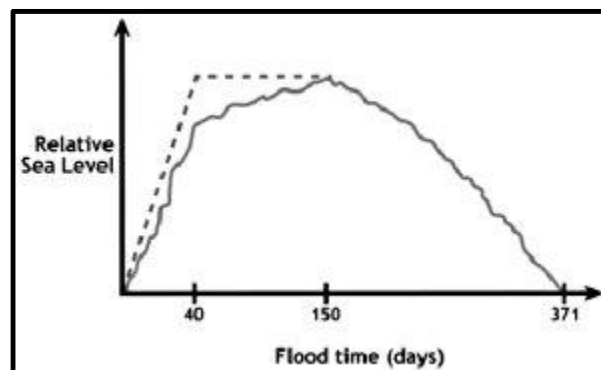


그림 7.2. 이 그래프는 홍수 시작 후 150일 동안의 해수면 높이의 상대적인 상승과 그 이후 221일 동안의 해수면 높이의 점차적인 감소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곡선이 완만하지 않은 이유는 해수면의 일반적인 상승, 하강 동안 몇 가지 변수들이 해수면의 높이를 변동시켰기 때문이다. 점선은 홍수 시작 후 40일만에 홍수의 정점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나타낸다.

퇴적암 내의 교차층들은 오늘날 유래가 없는 놀라운 화산 활동의 증거이다. 광대하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화산 흐름과 화산재 층간 퇴적암이 있으며 이것들은 전 세계적인 대홍수 패러다임에 잘 어울린다. 대홍수가 끝날 때 대기는 많은 양의 화산재와 가스로 덮여있었을 것으로 보인다<7>. 성층권에 갇혀있는 풍부한 화산재와 가스는 “반온실(anti-greenhouse)”로 작용했을 것이다(그림 6.1을 보라). 그것은 지구를 데우는 대신 햇빛을 우주로 반사시켜 지구를 식혔을 것이다. 동시에 지구의 적외선 복사도 계속 일어났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화산 먼지와 가스가 지구를 상당히 냉각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980년 5월 워싱턴 주에 있는 세인트헬렌산의 분출을 기억한다. 오레곤에서 내가 살았던 중앙 몬타나에 이르기까지 어둡고 자욱한 안개가 나는 것을 보았다. 어둠은 이를 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그것을 주요 사건으로 보았지만, 이 분출은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난 많은 사건들에 비해 실제로는 작은 것이었다. 가장 큰 것으로는 1963년 발리 섬의 아궁(Agung),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Krakatoa),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Tambora), 1783년 아이슬란드의 라키(Laki)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의 커다란 화산 분출은 대개 한 지역 또는 반구를 화씨로 1도 내지 2도(섭씨 약 1도) 정도 식힌다.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에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냉각은 1 ~ 3년 지속된다.

탐보라(Tambora)는 가장 큰 화산 폭발로 1816 년에 “여름이 없는 해”를 일으킨 것으로 기록된다. 전례 없는 일련의 찬 바람이 미국 북동부와 인접한 캐나다 지역을 식혔다. 6월에 폭설이 내렸고 7월과 8월에 서리가 작물의 실패를 초래했다. 심지어 그해 여름에는 유럽에서도 선선함을 경험했다.

David Keys<8>는 서기 535년에 기록된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암흑, 냉해, 작물 파동 및 사회적 격변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전 지구적 대홍수로 인한 광범위한 화산 활동은 유사 이후 어떤 사건보다 기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홍수로 인한 화산재와 가스는 아마도 적어도 3년 가까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3년은 빙하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이다. 분출은 홍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9>. 지질학자들은 빙하 시대에 광범위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빙하기 연구원인 Charlesworth<10>는 다음과 같이 썼다:

... 홍적세(빙하기)의 화산활동과 지각 이동의 징후들은 세계의 모든 곳에서 보인다.

미국 서부에만 해도 68개가 넘는 종류의 화산재 퇴적물이 확인되며, 대부분 빙하기와 일치한다. 화산 폭발 중 일부는 매우 광범위했다.

남태평양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분출한 엄청나게 큰 화산재 층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400만 평방 마일(1 천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화산재를 두껍게 쌓아 놓았으며 몇 달 동안 지구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폭발은 대륙의 엄청난 냉각을 가져 왔다.

빙하기의 폭발은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증거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에 화산 분출은 성층권의 먼지와 가스를 보충하고 냉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 지구적 대홍수 이후 점차적으로 지구가 안정될 때 분출이 다소 무작위적이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점진적인 감소의 양상 내에서 증가와 감소를 보였을 것이다(그림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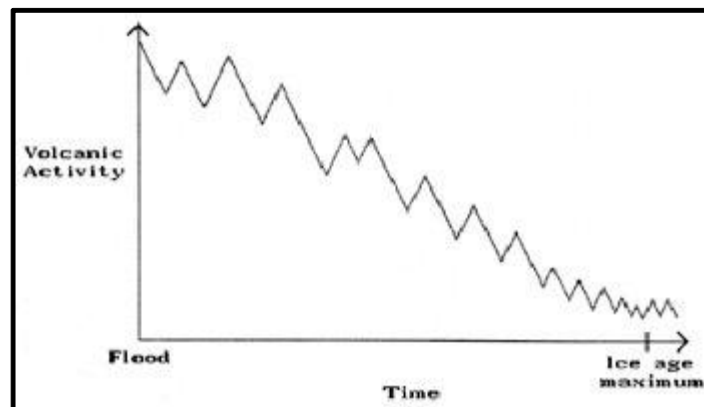


그림 7.3 대홍수 이후 줄어드는 화산 활동

화산 활동이 그토록 좋은 냉각 메커니즘이라면, 왜 동일과정론적 과학자들은 그것을 빙하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그들은 화산재와 가스가 지구를 식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각 빙하기가 10만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인식한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빙하기를 지속시킬 만큼 화산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 Paul Damon<12>의 다음 글을 참고하라:

... 위스콘신 빙하기와 같은 대륙 빙하기를 초래하기 위해 화산폭발은 지난 160년 동안 보다 10배는 더 많아야 한다.

위스콘신 빙하기는 동일과정설 다중 빙하기 체계에 따른 마지막 빙하기이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빙하기를 시작하기 위해 화산 활동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Bray<13>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화산 활동이 눈 덮인 여름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Bray<1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기서 짧은 간격을 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거대한 화산재 분출로 인해 [눈이] 보존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빙하기를 위해서는 눈이 덮이는 것에 이어서 여름에 냉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불행하게도 지속적인 화산 폭발 없이 수 년 이상 빙하기가 지속될 수 없다. 햇빛이 증가하면 눈이 빠르게 녹는다.

창조론자의 시간 척도는 단축 되었으며, 이 엄청난 화산 분출은 대홍수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 틀이다.** 잦은 분출의 결과로 인한 대기는 빙하기가 시작되고 유지되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The second requirement – heavy snow (두 번째 필요조건 - 많은 강설)

육지의 광범위한 여름철 냉각은 빙하기가 시작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다. 많은 강설량은 두 번째 조건이다. 차가운 공기는 습기가 적기 때문에 냉각만으로는 더 많은 강수량을 생성 할 수 없다. 이것이 동일과정설적 빙하기 이론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이다.

대홍수 이후의 빙하기 모델에서는 중위도와 고위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함으로써 빙하기에 필요한 풍부한 수분이 생성된다. 왜 대양이 따뜻했을까? 첫째, 대홍수 전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따뜻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큰 깊음의 샘”에서 온 물이 지구의 지각 내에서 온다면 많은 따뜻한 물이 대홍수 전의 대양에 더해졌을 것이다. 지구의 지각은 1,000 피트 깊이당 약 10°F(100m 당 2°C) 따뜻하다. 샘의 물이 3000 피트(900 미터)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꽤 따뜻했을 것이다. 그것이 10,000 피트(3,000 미터) 이상에서 왔다면, 물은 뜨거웠을 것이다. 셋째, 대홍수 동안 격렬한 판구조 활동과 흐르는 용암은 더 많은 열을 가했을 것이다. 대홍수 동안의 지진과 빠른 해류는 이 따뜻한 물을 대홍수 이전 바다와 섞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홍수 직후의 대양은 극에서 극까지,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따뜻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극과 남극해에는 바다 얼음이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기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수영을 하기에 충분히 따뜻했을 것이다.

따뜻한 지표수 온도의 중요성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많기 때문이다(그림 7.4). 예를 들어,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물은 30°C (86°F)의 해양 온도에서는 10°C (50°F)에서보다 3배 더 빠르게 증발하고, 0°C (32°F)에서보다는 7배 빠르다. 보편적으로 따뜻한 바다는 많은 양의 증발을 생성한다.



그림 7.4. 추운 대기 온도와 따뜻한 물로 인해 연못에서 나오는 증기 안개

따뜻한 대양에서 나오는 이 열은 빙하기 동안 고위도와 중위도를 너무 따뜻하게 유지시켰을까? 일부 지역에서는 증발과 냉기와의 접촉으로 대양이 충분히 냉각 될 때까지 그러했을 것이다. 중위도와 고위도의 따뜻한 대양은 14장에서 설명될 털북숭이 매머드의 신비를 푸는 열쇠이다. 대양은 따뜻했을지라도 대륙은 성층권의 화산재와 먼지로 인해 시원했을 것이다. 따뜻한 바다에서 방출된 열과 땅 위의 공기가 혼합되어서 겨울의 온도가 오늘날에 비해서 더 온화했을 것이다. 화산재와 가스의 주요 효과는 여름 동안 땅이 시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요약하면, 대홍수와 그에 따른 여파는 빙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여름 냉각을 가져 오는 화산 먼지와 가스를 제공한다. “큰 깊은 샘”에서 나온 물이 대홍수 동안 혼합되어 따뜻한 바다를 제공한다. 중위도와 고위도에서는 따뜻한 바다가 풍부한 증발을 일으키고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릴 것이다. 빙하기에 필요한 두 성분인 시원한 여름과 많은 강설량이 창세기 대홍수 직후에 극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독특한 기후는 두 가지 메커니즘의 강도가 서서히 감소하기까지 대홍수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참조](#)

참고문헌

1. Alt, D., Glacial Lake Missoula and its humongous floods, Mountain Press Publishing Company, Missoula, MT, p. 180, 2001.
2. Guthrie, R.D., Mosaics, allelochemicals and nutrients – An ecological theory of late Pleistocene megafaunal extinctions; in: Quaternary extinctions: A prehistoric revolution, P.S. Martin and R.G. Klein (Eds.),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AZ, p. 292, 1984.
3. Marshall, L.G., Who killed cock robin? In: Quaternary extinctions: A prehistoric revolution, P.S. Martin and R.G. Klein (Eds.),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AZ, pp. 791 - 792, 1984.
4. Batten, D. (Ed.), The Revised & Expanded Answers Book, Master Books, Green Forest, AR, p. 154, 2004.
5. Fouts, D.M., and K.P. Wise, Blotting out and breaking up: Miscellaneous Hebrew studies in geocatastrophism;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R.E. Walsh (Ed.), Creation Science Fellowship, Pittsburgh, PA, p. 217 - 228, 1998.
Batten, Revised & Expanded Answers Book, p. 169-170.
6. Oard, M.J., Vertical tectonics and the drainage of Flood water: A model for the middle and late diluvian period – Part I, Creation Research Society Quarterly 38:3 - 17, 2001. Oard, M.J., Vertical tectonics and the drainage of Flood water: A model for the middle and late diluvian period – Part II, Creation Research Society Quarterly 38:79 - 95, 2001.
7. Oard, M.J., An Ice Age Caused by the Genesis Flood,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El Cajon, CA, p. 23 - 38, 1990.
8. Keys, D., Catastrophe: An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s of the modern world, Ballantine Books, New York, 1999.
9. Oard, Ice Age Caused, p. 67-70.
10. Charlesworth, J.K., The Quaternary era Edward Arnold, London, p. 601, 1957.
11. Toon, O.B., et al., Evolution of an impact-generated dust cloud and its effects on the atmosphere,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Special Paper 190,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oulder, CO, p. 197, 1982.
12. Damon, P.E., The relationship between terrestrial factors and climate; in: The causes of climatic change, J.M. Mitchell Jr. (Ed.), Meteorological Monographs 8(30),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Boston, MA, p. 109, 1968.
13. Bray, J.R., Volcanic triggering of glaciation, Nature 260:414 - 415, 1976.
14. Ibid., p. 414.

창조의 절정

성경과 세속 과학은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 매우 다른 두 가지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세속 과학자들은 사람(인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이란 진화를 수단으로 순전히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지적인 동물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더욱이, 다른 세계에는 다른 많은 지적인 존재가 진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적일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에 대한 권위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창세기 1:26-28).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행성 지구가 해와 달과 별들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었음을 안다(창세기 1:1-19). 사실상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세기 1:14-19; 시편 19:1-6). 지구는 “사람이 거주하게”(이사야 45:18) 창조되었으며, 거기서 암시하는 바로는 이 우주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지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타락과 대속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음의 벌을 받았을 때 **모든 피조물**이 저주의 영향을 받았다(로마서 8:18-25; 골로새서 1:19-20). 그러나 창조에서 인간의 우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으며 우리의 인간성을 영원히 함께 나누었다(요한복음 1:1-3, 14; 빌립보서 2:5-11; 골로새서 1:15-20; 히브리서 1:1-3).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마서 8:14-17)이며, “그리스도의 신부”(호세아 2:19, 20; 고린도후서 11:2; 에베소서 5:25-27)이며,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을 것”(요한계시록 3:21)이라고 기록되었음을 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신분과 운명을 우주적인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특권들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계획 하셨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독특한 존재이며, 생물학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창조의 정점에 있음을 나타낸다.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욕구는 바로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인 것 같다.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이 수십억년의 마지막에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만드셨다(마가복음 10:6, 강조는 내가 한 것임)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주목하라. 그리고 그분이 암시한 것은 사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누가복음 11:50-51). 수천년 전의 창조 주간은 진정으로 창조가 시작될 때였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였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그분의 욕구라고 말하면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유신진화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기 원하셨다면, 생명이 시작되기까지 100 억년을 기다린 다음, 또 다시 40 억년을 기다려 마침내 인류가 경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죄를 저지르는 등 특별히 번거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했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 ...”

과학적인 증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역사적인 증거 등 이런 가르침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실제로 있다.

1)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엄청난 증거는 성경의 묘사를 분명히 지지한다. 미생물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유전학적 증거도 그러하다. 모든 다세포 생명체 형태의 지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놈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퇴화한다**. 이것은 하나님 혹은 방대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가 생명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지 않고서는 우주 어느 곳에서도 생명이 발생하여 발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생명체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이며 인간의 지성과 영성은 유일하다는 성경적 의미를 지지하고 있다.

2) 인간의 몸과 마음의 특징을 보면 분명히 영적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단순히 생존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것과는 훨씬 많이 다르다. 그런 특징들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겨날 수 없으며, 인

간의 영적 상태가 독특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다른 많은 것들 중, 인간의 독특한 자질, 인간의 언어 및 인간의 뇌를 들 수 있다. 또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한 감정과 도덕적 의지와 더불어 다른 동물의 특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이다.

3)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사람은 **항상**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은 때때로 그들의 죽은 자를 매장할 때 내세를 위한 것으로 짐작되는 물품들을 같이 매장했다. 우리 시대의 예로는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규제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과학적 증거가 우세하다”는 사실이다. 세속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 증거에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할 것이지만, 사람이 단순하게 맹목적인 진화의 산물이라면 사람들은 이러한 발견을 예상하기 어렵다.

4)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서 천억개, 아마 1조개의 은하를 가지고 있다. 지구가 우주의 중앙 혹은 그 부근에 있다면 사람의 고향은 매우 특별하며 따라서 사람 자체도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세속 과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빅뱅 가정이 우주는 경계도 없으며 중심도 없다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에는 경계가 있고 중심이 있으며 우리의 은하계가 중심 혹은 그 부근에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성경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발견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특별하다는 것을 확증해 줄 것이다.

5) 지구가 정말로 해와 달과 별들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사람의 고향 및 사람 자체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경은 천체가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지구의 시간으로) 창조의 넷째날에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면, 멀리 떨어진 별빛이 성경적 시간틀 이내에 어떻게 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수많은 표면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지만, ‘중력 시간 팽창’을 포함한 새로운 이론들이 이성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확증해 주었다. 더욱이, 새로운 이론들은 성경의 설명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는 빅뱅 가정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설명해 준다. 사실상 빅뱅은 심지어 세속 과학자들도 부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결점들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먼 거리 별빛’ 문제를 가지고 있다.

6) 우리의 행성 지구가 왜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생명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많은 결정적인 인자들이 ‘정확히 맞아야’ 한다는 것이며, 지구의 경우에는 그들 모든 인자들이 정확히 맞게 되어 있다. 사실상 (과학적인 관점에서) 지구는 우리가 알듯이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우주 내의 단 하나의 행성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심지어 일부 세속 과학자들도 이것을 인정한다.

7)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가 수천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며,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모든 계층이 지니고 있는 해로운 돌연변이의 ‘축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다세포 생명체가 수백만 년 전에 시작 되었다면 지금은 그들 모두가 사라졌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수천년 전에 창조의 **시초**에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해 준다.

따라서 진정한 과학이 말하는 사실들은 인류가 창조의 절정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해 준다.

출처: Creation magazine Vol. 40(2018), No. 1, pp.52-54 **창조**

101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다

(느헤미야 8-10)

에스더 왕비 이후 30 내지 40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는 에스더 남편의 후계자인 아르탁세르세스 1세의 껍을 든 자로 섬겼다. 이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용했고, 거기서 느헤미야가 통치하며 성벽을 재건하였다. 에스라는 심각하게 무시되어 왔던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었다.

수문(Water Gate)

느헤미야가 재건한 동쪽 벽을 따라 그 벽 아래로 3분의 2쯤 내려가면 오펔의 언덕 남쪽에,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많은 문들 중의 하나인 수문이 있다. 그 문의 양쪽에 돌출된 탑이 있었다. 여기 열린 광장에서 BC 444년에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읽어주었다. 이것을 기회로, 사람들은 자기집 지붕에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출애굽 동안의 생활을 기억했다.

서기관 에스라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첫 번째 무리의 귀향하는 사람들을 인솔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수년 후인 BC 45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5천명의 사람들을 인솔하여 왔던 제사장이었다.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쳤을 때 에스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관행의 종지부를 찍었고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에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서쪽벽에서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읽고 있다.>

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다.

에스라가 바벨론 유수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후에 율법을 다시 소개했다는 이유로 그를 “두번째 모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그가 유다의 총독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현저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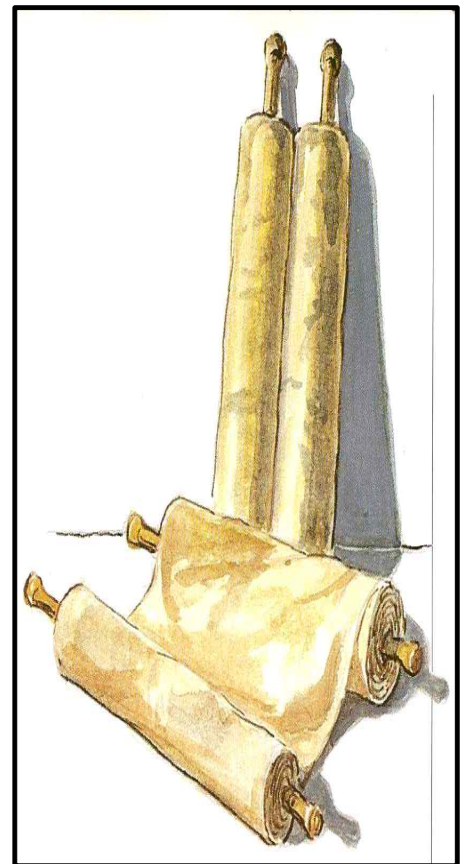
베옷(즈크, Sackcloth)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한다는 상징으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비탄의 상징이었다.

베옷은 낙타 혹은 염소 털로 만든 거친 옷이었다. 그것으로 자루를 만들면 곡식을 담는 데 사용했고, 오늘날에는 마대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특별히 장례식 같이 장중한 경우에는 의복으로서 베옷을 흔하게 입었다. 특히 속옷으로 많이 입었다. 그것이 거칠고 잘 굽히기 때문에 자책을 하거나 후회를 할 때 적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두루마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서”를 읽을 때 그는 오늘날과 같은 책을 읽은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는 두루마리를 읽은 것이다. 두루마리는 가죽,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로 만든 종이를 말한다. 그것은 보통 높이가 약 1피트 정도이며 길이는 35피트만 큼 된다. 양쪽 끝은 나무 롤러에 감겨져 있다. 글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로 진행되므로, 책을 읽으려면 오른쪽 롤러는 감으면서 왼쪽은 풀어나간다. 나무 롤러는 가장 흥미롭다. 밑부분은 둥그렇게 해서 손으로 잡기 쉽게 만들었다. 중간 부분은 두루마리 안에서 감기는 부분이다. 윗부분은 마디와 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다. 두루마리는 보통 상자 안에 보관했다. 에스라가 읽어주었던 모세의 율법서(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아마도 두루마리 다섯 개였을 것이다.



<“책들”의 형태를 보여주는 두루마리로서 특히 율법서가 그 때에 만들어졌다.>

그 뜻은 “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 시기를”이다. 여기서 신은 바벨론의 달의 신이다. 산발랏은 아마도 그의 지위 안에 유다도 포함시키기를 원 했을 것인데 느헤미야의 도착이 그 런 가능성을 위협했다. 그의 두 아 들 딜라일라와 셀레미야가 유대식 이름을 가졌고 그의 딸이 나중에 대 제사장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로 보면 그가 나중에 느헤미야의 사람 들과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느헤미야는 대부분 왕의 컵을 든 자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 건한 자로 기억된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는 여전히 거 대한 돌 성벽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보인 성벽은 AD 1542 년에 옛날의 기초 위에 건설된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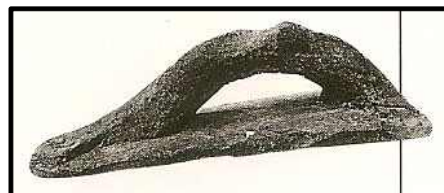
도비아는 아마도 페르시아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였을 것이다. 그와 그의 아들이 모두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였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를 성전 안에 있는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했지만, 후에 느헤미야가 그를 내보냈다.

아라비아 사람 계셈

계셈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함께 느헤미야의 대적자였다.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설명은 페르시아를 위한 예돔의 통치자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아니면 고대 미디안 땅의 시내산 동쪽 엘랏 만을 가로지르는 드단의 통치자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페르시아의 아르탁세르세스 1세의 컵을 든 자였다(BC 464-424). 이는 큰 신뢰를 얻었고 중요한 지위였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에 대해 배우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행동하기 이전에 사물을 사려 깊게 연구하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그의 적대자들을 얼마나 빈틈없이 대하는지를 주목하라. 거기에는 주변지역 출신 사람들도 있고 그의 지도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부유한 유대인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이율을 부과하거나 돈을 못 갚으면 동료 유대인을 노예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건축 연장은 오늘날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림에 있는 석공의 흠손은 이집트 시대의 것 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것도 거의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십일조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에게 자기들 농작물의 십일조를 가져오기로 약속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십일조를 모았다.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성전 창고에 드려서 제사장들을 공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했다. 십일조는 십분의 일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들에도 십일조가 알려져 있다.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종종 세금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인들은 그들 농작물의 오분의 일을 파라오에게 바쳤다. [참조](#)

1. 김태수

창조과학 심화과정을 통해 평소에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계산, 사랑 가운데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유신진화론의 악영향으로 인한 생명 경시 현상, 생명 설계는 결과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사용 목적과 존재 목적이 다 있음과 정크 DNA의 역할과 우주 창조와 연대, 진화론의 역사와 진화주의의 뿌리 깊은 교육으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불인정, 생명정보의 기원을 통해 우리 몸 안의 시그니처와 미세할 정도로 세밀한 우리 신체 조직과 구조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설계, 설계의 목적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창조과학 심화과정을 수료하면서 창조론과 창조과학을 혼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의 한 분야이며, 성경에 기초하여 창조에 대해서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창조과학은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이론 체계의 수립을 통하여 진화론의 과학적 오류를 밝히고, 창조가 바로 우주와 자연을 해석하는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창조과학은 과학적 권위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 권위를 세우려는 시도보다는 과학적 방법으로 진화론의 잘못된 주장과 비과학적 주장을 명쾌하게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함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정체성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귀한 창조과학 사역에 동참되어야 하겠다.

2. 노기영

〈독후감〉 ‘빅뱅과 5차원 우주 창조론’을 읽고

책을 읽으며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그래서 ‘깨우침’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도 크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숙제를 받은 느낌입니다. 여전히 공부할 것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나 설명은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후 다시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니 볼 때마다 이해의 폭이 깊어집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더 거치면 ‘책을 읽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이해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몇 번 반복해서 책을 읽은 지금도 ‘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책을 읽으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모두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책을 읽으며 우주 공간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책을 덮을 때는 막 지구로 돌아온 우주선의 해치를 열고 나오는 우주인이 된 듯 하였습니다. 우주인이 우주선이라는 독특한 조건에서 지구의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3차원에 맞춰서 생각하던 틀에서 벗어나 시공간이 휘어지는 세상을 생각해 보고 다른 차원을 상상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뉴턴이 생각한 우주의 모습이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고의 수준이 사고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뉴턴이 생각한 정적 우주론은 평범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론이겠지요.

뉴턴 물리학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분야입니다. 뉴턴 물리학 수준에서 습득하고 체계화된 지식으로 직장을 구했고,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수준은 딱 여기까지 인듯합니다. 나의 인지 범위가 이 정도이니 이 작은 인지 범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변화하는 빅뱅 이론 부분을 보면서 진화론자들의 믿음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뱅이론에 연이어 발표된 다른 이론들을 보면 빅뱅이론을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는 느낌 보다는 빅뱅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가설로 보완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이론들조차 허점이 많아 또 다른 가설을 가져와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이론들은 빅뱅이론을 근거하고 있으니, 순환 논증 오류의 실제 사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논리의 허점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그들의 믿음(?)으로 극복이 되나 봅니다.

진화론을 이야기 하는 무신론자들은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는 관념을 마치 과학으로 검증이 된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관념을 수용하고 따르면 과학적이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마치 비과학적, 비논리적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본 진화론의 이야기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생각은 아닐 듯 합니다.

미세 조정된 지구를 볼 때, 설계자가 분명하게 계시고, 그 분의 지혜가 피조물 속에 투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인 확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천체가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그 속에 조화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각을 이어나가 보면 누군가의 질서가 피조물 가운데 내재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조정된 지구의 이야기는 이 책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접해 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로슈 한계’는 책을 통해 처음 접한 개념입니다. 우주 창조가 아주 오래 전이 아니라 보통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우주의 나이를 유추할 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에서 소개 된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 중에서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전문 용어의 의미부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후감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볼 때 낯설었던 내용이 다시 볼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또 다시 보니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제대로 된 독후감을 쓰려면 수십 번은 더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신념 속에서 광활한 우주를 이해하려는 것 보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전제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 중 어느 것을 믿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과학적 사실보다, 무엇을 믿고 싶은가 하는 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감문〉 심화과정을 들으며

창조과학 심화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나 작아서 인지할 수도 없는 분자와 분자 속 여러 가지 기관들의 작동원리를 배웠습니다. 또한 너무나 커서 그 크기를 물리적 단위로 나타내기도 힘든 우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초 미세/초 거대 이 양극단의 물리적인 세계도 단 한 분의 창조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초 미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초 거대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를 있게 하시고, 모든 물리 법칙과,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저자 직강으로 재미있는 창조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니 기대가 된다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람의 인지능력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서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겠지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자신의 전문 진료 과목 이외의 진료에는 불편함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교수들조차도 자신의 전공분야를 벗어난 이야기라면 보통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전공을 아우르고 시공간을 넘어 완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식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과학 수업을 듣기 전에는 상투적으로 사용한 말이라면, 이제는 놀라움과 경외함으로 마음을 담아 이 말을 사용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외우기에 약한 나는 고등학교 시절 국사와, 세계사 수업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을 공부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배우는 이 지식들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의 과학 과목은 좋아하기는 했지만 공부한 내용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필요로 하는 지식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학령기의 짧은 시간 동안 밀도 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공부, 특별히 세계사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학과목들을 공부한 기억이 지금 창조과학 수업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토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분별하는데 필요합니다. 학창시절 학교 공부로 기초를 잘 쌓아 놓는다면 창조과학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창조과학 수업을 포함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신청할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재미가 있을까? 유익한 교육일까? 무엇보다도 수강 기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저하며 시작한 창조과학 수강인데, 어느덧 기본과정을 넘어 심화과정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속에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고, 피조물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했던 것과 달리 특별한 일 없이 이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익할까?’ 하며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수강이었는데, 지금은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창조과학 수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유익하다고, 꼭 듣고 배워야 한다고……

풍성한 강의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강사님들,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이요한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창조과학은 내가 성경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주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창조세계에 나타난 경이로운 질서와 아름다움과 놀라운 기능들은 로마서의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는 말씀처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데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창조과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진화론의 허구와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진화론에 바탕을 둔 세계관의 악영향과 위험성을 알게 된 반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심화과정의 필독서인 ‘빅뱅과 5차원 우주 창조론’을 읽고서는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빅뱅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전공이 아니었기에 깊이 공부할 생각을 못하고 교과내용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론 수립 과정과 여러 문제점, 그리고 창조론적 관점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 아직 권진혁 교수님의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책의 내용을 읽은 후라서 그런지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된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모든 강좌가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유신 진화론의 악영향과 진화론의 역사와 진화주의 강좌는 창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되새기게 해주었다. 생명설계와 생명정보의 기원은 자연에서 관측된 여러 데이터에서 창조와 창조주를 발견하고 기억하게 해주었다. 개인사정으로 참석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들은 정크DNA에 대한 강좌는 생명의 설계도인 DNA의 정보량의 방대함과 유전형질 발현 기작의 복잡이 창조주의 신묘막측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바는 앞으로 개설되는 강좌에 지질학-연대측정 분야에 대한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확신에 찬 강의를 해 주신 강사분들과 모든 일과 후에도 강의에 참석하시는 다양한 연령, 직업을 가지신 수강생 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창조에 대한 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많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간식과 식사 준비로, 세미나 전반의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부기도제목

1. 지부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앞서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소서.
2. 차세대의 젊은 창조과학자들을 세워주셔서 본인의 연구 성과가 뛰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3. 2018년 전국학술대회 준비가 잘 되도록 - 2018년 5월 19일 대구에서 개최될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강사들이 잘 섭외되게 하시고,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잘 선정하게 도우소서. 학술대회가 개최될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경산중앙교회).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여 대회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기독교계가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소서. 신학대학들이 연계하게 하시고, 훌륭한 과학적, 신학적, 세계관적 연구 성과가 나타나 학술대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술대회가 되게 하소서.
4. 생물학, 물리학, 지질학의 일반 이론을 배우는 창조Study 모임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5. 대구와 구미의 심화과정 6기를 마치고 강사과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날짜를 잘 정할 수 있도록
6. 2월 26일부터 기본과정 10기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7. 지속적인 군부대 및 학교사역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게 하소서.
8. 후원교회들(대평교회, 동로교회, 동성교회, 삼일교회, 시와찬미교회, 아멘교회, 여남교회, 영안교회)이 말씀에 바로 선 영적 성장을 하며, 더 많이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후원교회가 생기게 하소서.
9.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부 회원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소서.

1 월 강 연 내 역

이종헌	2018-01-03	독수리교회장병	노아의 홍수
강기태	2018-01-08	구미심화6기(5주차)	성경적 빙하기
지명구	2018-01-08	구미심화6기(5주차)	타협이론
전창진	2018-01-11	대구심화6기(4주차)	생명설계I
전창진	2018-01-11	대구심화6기(4주차)	생명설계II
정재훈	2018-01-12	인터콥 초등학생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종헌	2018-01-15	구미심화6기(6주차)	창조Q&A
전창진	2018-01-17	한국누가회 수련회 EBS팀	생물학적 진화아이콘:사실가정왜곡
권진혁	2018-01-18	대구심화6기(5주차)	우주창조와 연대1
권진혁	2018-01-18	대구심화6기(5주차)	우주창조와 연대2
정재훈	2018-01-18	LU어린이캠프(1,2학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종헌	2018-01-18	LU어린이캠프(3,4학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같은주	2018-01-18	LU어린이캠프(5,6학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같은주	2018-01-18	LU어린이캠프(1,2학년)	전세계를 뒤흔든 대홍수
정재훈	2018-01-18	LU어린이캠프(3,4학년)	전세계를 뒤흔든 대홍수
이종헌	2018-01-18	LU어린이캠프(5,6학년)	전세계를 뒤흔든 대홍수
정재훈	2018-01-19	LU어린이캠프(1,2학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종헌	2018-01-19	LU어린이캠프(3,4학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강기태	2018-01-19	LU어린이캠프(5,6학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같은주	2018-01-19	LU어린이캠프(1,2학년)	전세계를 뒤흔든 대홍수
강기태	2018-01-19	LU어린이캠프(3,4학년)	전세계를 뒤흔든 대홍수
이종헌	2018-01-19	LU어린이캠프(5,6학년)	전세계를 뒤흔든 대홍수
이종헌	2018-01-25	대구심화6기(6주차)	창조Q&A
이종헌	2018-01-27	디지스트 창조과학 동아리	동성애
이종헌	2018-01-28	아멘교회 초등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2 월 강 연 예 정

이종헌	2018-02-03	디지스트 창조과학 동아리	그랜드캐년과 지층
이종헌	2018-02-04	이수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종헌	2018-02-06	세부성경신학교	Icons of Evolution
이종헌	2018-02-06	세부성경신학교	Geologic Column
이종헌	2018-02-06	세부성경신학교	Mathematical Design of Life
이종헌	2018-02-06	세부성경신학교	Bible and Science
이종헌	2018-02-07	세부성경신학교	Mystery of Universe
이종헌	2018-02-07	세부성경신학교	Big Bang Theory
이종헌	2018-02-07	세부성경신학교	UFO and Mysticism
이종헌	2018-02-07	세부성경신학교	Ice Age and Catastrophic
이종헌	2018-02-08	세부성경신학교	Reason to believe in Genesis
이종헌	2018-02-08	세부성경신학교	Homosexuality
이종헌	2018-02-08	세부성경신학교	Bible Archaeology
이종헌	2018-02-26	기본과정 10기	진화론의 영향

지 부 소 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2018년도 창조과학 기본과정(10기) 참가자 모집

-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복음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창조과학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
(자격제한 없음)

주요 프로그램:

- 창조와 진화
- 노아의 홍수와 방주
- 창조과학 주요 강연 수강
- 최신 창조과학 핫이슈 토의 등

교육기간: 2018. 2. 26 ~ 4. 2 (6주 과정)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10시)

등록비: 7만원 (사전 등록시 교재무료)
장소: 성서행복한교회(다사읍 매곡리)


참가신청/문의: ~ 2월 20일까지
010-2051-0922 (지명구간사 카톡아이디 jimg)

특기사항:

- 심화과정 수강자격 부여
- 한국창조과학회 수료증 수여
(5주 이상 참석 및 필독서 감상문과 간증문 제출 하신 분)

주최: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교역자 가족 등록비 감면



설립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Daegu Affili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 편집인의 변 **

이번 호에는 귀한 자료들이 넘쳐나는 관계로 편집인의 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귀한 자료와 글을 투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즐겁 명절 잘 보내시고 담 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살롬~~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21.or.kr@gmail.com)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